

# '자해공갈' 보험금 15억 뜯어

### 렌터카 이용 여성 등 대상 고의 교통사고 내 광주·전남 등 10개 폭력조직 100여명 적발

주부와 신호위반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낸 뒤 십억원이 넘는 보험금과 합의금을 뜯어낸 조직폭력배 일당 10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북부경찰은 11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15억원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속칭 '무등산파' 폭력조직원 체모(20)씨 등 5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달아난 나머지 일당 47명을 같은 혐의로 뒤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3년 10월부터 주부와 타자의 운전자를 상대로 모두 44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모두 15억원을 뜯어낸 혐의다. 경찰에 적발된 일당 108명 가운데 51명은 속칭 '무등산파' 등 광주·전남지역 9개 폭력조직과 서울 '방배동파' 등 모두 10개 폭력조직의 행동대

원이며, 나머지 57명은 이들의 가족·친구·여자친구인 것으로 밝혀졌다.

◇**법행 수법**=이들은 승합차 등에 4~5명씩 타고 대기한 뒤 ▲일방통행로 역주행 차량 ▲신호위반 차량 ▲주차중 후진 차량 등에게 고의로 충돌했다. 뒤따르는 차량 운전자가 여성일 경우 급정거 등을 통해 고의로 사고를 유발했다. 자신들끼리 렌터카 회사에서 2대의 차량을 빌린 뒤 서로 고의로 충돌 사고를 낸 것으로 위장, 보험회사에서 돈을 타내는 수법을 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험 부담금이 올라가는 것을 우려해 주로 렌트 차량을 이용해 범행에 사용했으며, 고급차량보다는 보통 승용차 등을 노린 것으로 밝혀졌다. 무면허·음주 운전자에게는 가족들을 찾아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한 뒤 형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

◇**수사 확대**=경찰은 조직 폭력배들이 유증업소 갑취 등을 통한 자금줄이 막히자 조직의 활동자금을 마련키 위해 폭력조직 간 거대 연합 세력을 구축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다른 조직폭력 조직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고의 사고 뒤 주로 일행에 보험금 등을 타낸 광주 시내 29개 병·의원과 보험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공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호남지부 정성인(46) 팀장은 "이들이 일방통행 역주행 등 과실이 100% 인정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보험사에서는 적발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폭력배들이 사고를 당했다며 강하게 주장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사고처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범죄 및 보험사별 추가 피해금액 등을 확인할 경우 피해자와 피해 보험사, 피해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 국민대회 개최지·대통령 來光 저지 등 민노총-5월단체 갈등

### 5·18행사위 "예산 지급않겠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정희성) 등이 '5·18민중항쟁 제26주년 정신계승 국민대회'를 광주가 아닌 평택에서 열기로 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내광(來光)을 저지하기로 결정하면서, 5월 단체 등과 마찰을 빚고 있다.

'5·18민중항쟁 제26주년 기념행사위'(상임대표 박석우)는 11일 '비상상설기획단 회의'를 열고, "민주노총 등이 임의로 행사장소를 변경한 만큼 만들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보험사에서는 적발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폭력배들이 사고를 당했다며 강하게 주장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사고처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정신계승 국민대회'는 13~14일 금

남로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며, 기념행사 총 예산 3억5천만원(광주시 1억8천만원·국가보훈처 1억5천만원·전남도 2천만원) 중 1천600만원이 배정됐다. 또 민주노총과 '광주·전남 민중연대'가 행사를 공동주관할 예정이었다.

'5·18구속부상자회'(회장 이성길) 등 5월 단체도 이날 "조만간 민주노총의 방침을 반박하는 성명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측은 "최근 평택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80년 5월과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이곳에서 대회를 여는 것은 5월 정신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우산 챙기세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차차 흐려져 남서쪽 지방부터 약한 비가 오겠다.

**5월 12일**  
(음 4월 15일)  
◇전국날씨

광주	흐리고 비	13~23℃
대전	흐리고 비	12~20℃
대구	흐리고 비	13~19℃
부산	흐리고 비	11~19℃
서울	흐리고 비, 안개	11~24℃
인천	흐리고 비	9~21℃
전주	흐리고 비	9~21℃
제주	흐리고 비	12~20℃
목포	흐리고 비	10~23℃
여수	흐리고 비	11~20℃
광주	흐리고 비	11~20℃
전주	흐리고 비	11~20℃
대전	흐리고 비	12~23℃
대구	흐리고 비	11~23℃
부산	흐리고 비	11~23℃
서울	흐리고 비	11~22℃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5m  
남해서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남해동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5m  
남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5~3.0m  
목포 밀물 < 01:34 썰물 < 06:52  
여수 밀물 < 08:20 썰물 < 02:23

▲해돋이 05:31 ▲해질 19:27 ▲달돋이 18:37 ▲달집 04:32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3(토)	14(일)	15(월)	16(화)	17(수)	18(목)
날씨						
최저/최고	12/18	9/24	9/26	12/28	14/27	13/27

# '노래방 도우미 규칙'?

1. 나는 손님 기본을 맞춰주는 서비스 인이다.
2. 손님께 어떠한 경우에도 팀을 요구하지 말 것.
3. 15분 이내에 나오면 시간비 요구하지 말 것.

### 보도방 업주 수첩에 13가지 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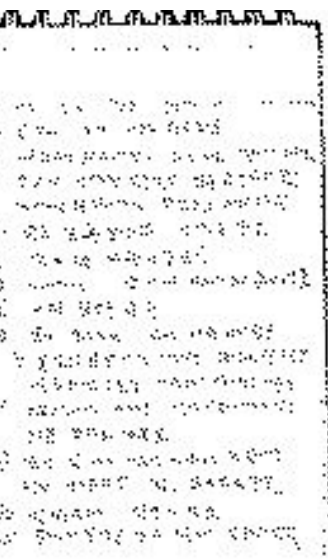
광주 서부경찰이 11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보도방' 업주 최대(40)씨의 수첩에는 13가지 '규칙'이 적혀 있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 사무실을 내고 생활정보지에 '노래방 도우미'를 구합이라는 광고를 낸 후 도우미 20여 명을 고용하고 이들을 30여개 업소에 소개했다가 검거됐다.

수첩에 적힌 내용은 새로운 도우미가 올 때마다 최씨가 주지시킨 이른바 '노래방 도우미 규칙'. 여기엔 ▲손님 과절대 대립하지 말 것 ▲룸에서 일어난 일을 절대 말하지 말 것 등도 포함되어 있다.

외모·복장이 맘에 들지 않는 '폭탄' 손님이 왔을 때는 ▲파트너 바꾸지 말 것 ▲룸에 들어가서 먼저 캔슬 내지 말 것 ▲본인의 분위기가 아니면 5분 이내에 정중하게 인사하고 나올 것 등 대처방법도 알려졌다.

'(노래방) 직장 내 윤리 강령(?)'도 있었다. 술·안주를 많이 팔아줄 것, 웨이터·주인 팀 받아주기·필수, 바쁜 시간대(밤 10~12시)는 다른 방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물어볼 것 등이 그것이다.

한편 도우미들은 오후 8시에 출근하고 다음날 새벽 3~4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30~40대였으며, 이혼 후 아이 양육비를 벌려고 나선 경우가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보도방은 상무지구 유흥가에만 80여 개가 밀집해 있다"며 "도우미를 부르는 비용은 시간당 2만원이며 이중 보도방 업자가 5천원, 도우미가 1만5천원을 갖는 식으로 나뉘는다고" 밝혔다



노래방 도우미 '13가지 규칙'.

# 자외선 노출 '주의'

### '매우 높음' 매년 5월 등장 9월까지 각별히 조심해야

"여름철 자외선 조심하세요" 기상청 기상연구소(소장 정효상)는 11일 "최근 7년간 안면도 지구대기관측소 자외선 관측자료 분석 결과, 자외선지수(UVI) '매우 높음'(UVI 9이상)에 해당하는 값이 2000년 한해를 제외하고 매년 5월에 처음 나타났다"면서 "오는 9월까지 자외선 노출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값은 평균 피부 민감도를 가진 사람이 20분 가량 태양 빛에

그대로 노출될 경우 홍반이 나타나는 정도다.

기상연구소는 또 월별 자외선 영향에 대한 지속시간을 분석한 결과, 5월에는 오전 11시부터 '매우 높음'에 해당하는 값이 나타나기 시작해 오후 2시까지 지속됐다고 밝혔다.

6월에는 약 4시간, 7월 중순과 8월 한여름에는 오전 10시 10분에 나타나기 시작해 오후 3시 20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소 관계자는 "여름철 뿐만 아니라 5~9월의 맑은 날에도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주의의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 서울대 총장 후보 이장무·조동성씨

서울대는 11일 총장후보 선거 결선투표를 통해 제24대 총장 후보로 이장무(60) 전 공대 학장과 조동성(57) 전 경영대 학장을 뽑았다. 이 전 학장은 총투표수 1천468표 중 524.7표(35.8%)를 획득, 결선에

오른 3명 중 최다득표자가 됐고, 조 전 학장은 490.3표(33.4%)로 2위를 차지했다.

이날 투표에는 교원 1천622명 중 1천377명(투표율 84.9%), 직원 990명 중 910명(투표율 91.9%)이 참가했으며, 교원투표는 1인 1표, 직원투표는 1인 0.1표로 계산됐다.

대통령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제청을 받아 이들 중 1명을 총장으로 임명한다.

/연합뉴스



태극전사 명단 발표 관심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11일 오후 3시30분, 광주시 동구 금남로 지하상가 TV 앞. 이드보카트 감독이 독일 월드컵에 출전할 태극전사들의 명단을 발표하는 모습을 시민들이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경북대 등 한총련 잇단 탈퇴

### 광주·전남은 별 움직임 없어

서울대 총학생회가 10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과의 단절을 선언한 데 이어 경북대·단국대·동국대·경북대·명지대·성균관대·한국외대·한양대 총학생회 등 다른 대학 총학생회도 잇따라 탈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광주·전남지역 37개 대학 중 총학생회 차원에서 한총련 활동을

별이고 있는 전남대·조선대·순천대·목포해양대·조선이공대 등 5개 대학의 경우 아직 자진 탈퇴 움직임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광주·전남 대학에서 한총련과 관련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학생은 15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집회 등에 참석하는 학생까지 포함해 모두 500여명이 연루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광주가톨릭대학 등 10개 대학은 학생 투표참여율 저조 등으로 총학생회가 구성돼 있지 않은 상태이며, 나머지 20여개 대학은 비운동권 출신이 총학생회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비운동권 대학의 경우 한총련 규약상 대학 총학생회장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규정돼 있어 자동적으로 한총련 일원이 됐지만, 탈퇴를 위해서는 학생총회를 열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활동은 하지 않되 공식 탈퇴를 선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이제! 이집시다! 무방안을 선택하니깐...  
오네뜨빌  
57 52 50 48평형 / 225-0070

들어오세요!  
마지막 분양 - 34평형  
2년 전 분양가로 내 집 마련하세요!!  
225-7818